

故 박선호 박사와 함께 한 한국 생물공학 25년

이 선 복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한국에 생물공학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한국과학원에 생물공학과가 생기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생물공학과와 첫 입학생이 1974년에 들어 왔고 고 박선호 박사는 1978년에 화학공학과에 입학하였는데, 지도교수를 당시 생물공학과 교수로 계셨던 유두영 교수님으로 정해 나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되어 지난해 박교수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4반세기 동안 같은 분야에서 가장 오랜 시간 함께 지낸 동료이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박교수를 찾았었고 또 그가 어려울 때는 내게 도움을 청했었다.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혼자 먼저 훌쩍 떠나간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온다. 그동안 한국화학공학회와 생물화공부문위원회 일을 같이 하였었고 또 한국생물공학회의 영문지인 BBE의 편집위원회를 같이 운영해온 그였기에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이제 그와 함께한 세월들을 돌아 보며 아울러 한국생물공학회의 변천사와 그동안 한국의 생물공학이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 보고자 한다.